

무공저

지구의 기상이변

2022년 여름은 잔인하다.

8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기상관측 이후 115년만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38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남과 동작구 등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밤사이 450mm의 물 폭탄을 쏟아내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시설인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3기 가동이 한꺼번에 멈췄다.

포스코가 쇠퇴를 처음 겪어낸 197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경주·포항 지역에 영향을 미친 비구름이 지난달 서울 강남에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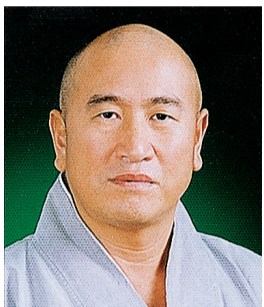
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니 식량 위기가 오고,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니 전염병이 돌고, 사회가 약화된 상황에서 민란이 일어나거나 외세 침입 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한다.

지구의 기상이변은 올해만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해마다 더 심하게 더 자주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더 살 수 없는 때가 오고 말 것이라고 진단하며 그 시기를 2050년 즈음으로 본다.

앞으로 30년 후면 지구상 많은 곳은 살기에 너무 불편하거나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80년 후면 2100년이면 지구는 전혀 다른 행성이 되어있을 것



중상 (청계사 회주)

폭우와 폭염, 더 빈번해진 자연재해 기후변화, 인류문명 무너뜨릴 수있어

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강바닥까지 물이 말라 2차 대전 때 침몰한 선박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면서 최소한 13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는 뒤이어 폭염이 닥쳤으니 해도 너무 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염, 더 빈번해진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는 문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기온이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때 사

이라는 예측이다.

생존을 위한 길은 이주뿐. 앞으로 수십 년 내 대대적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안을 떠나 내륙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대대적 이동은 시작될 전망이다.

한반도의 함경북도를 가로지르는 북위 42도 아래는 폭염과 가뭄, 산불이 극심해져서 더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지구온난화가 행운인 지역들도 있다.

시베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미국의 알래스카 등지는 동토들이 녹아 농도가 되고 흑한 대신 온화한 기후가 찾아들어 일대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또 어떤 불평등을 몰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 마당’축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참가

9월17일(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찾아온 청계사 스카우트 어린이 범종가 제14회 나란다 축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 마당’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상월결사 수행정신 체력과 진학진로 엑스포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 팔정도에 마련된 전통문화 한마당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참가한 초·중·고등학생과 지도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각 사찰 어린이 이법회에서 진행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100여명이 참여했다.

우리 청계사에서 스카우트대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종민대원 우수상, 박성준대원 장려상등 좋은 성적을 내어 더욱 기쁘고,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보람된 하루가 되었다.

(글 포교과장 연지화)



전통 문화체험 청소년 꿈마당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불자들.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선인(仙人)에게 활을 쓴 아버지

털이 긴 어떤 동물이 나를 해쳤습니다

0.....이번 이야기는 산길을 걷던 아들이 갑자기 달려든 곰의 발톱에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몸에 상처를 입은채 가까스로 도망친 아들이 겁에 질리고 너무 놀라 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분하고 화가난 아버지가 털이 긴 짐승이라는 소리만 듣고 산 속에서 오랫동안 수행만해 피부는 검고 수염 긴 노인을 그 동물로 확증하고 활을 쏘려 했다는 것이다.

0.....불멸의 명저 『손자병법』을 보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을 모를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한다.”

집안에서도 어른의 마음을 잘 읽는 아이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게 되었다.

아들이 숲에 들어갔다 곰을 만났다.

아들은 곰 발톱에 몸이 찢어지 황급히 숲을 나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몹시 상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상처를 입었느냐?”

아들은 대답하였다.

“몸의 털이 긴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해쳤습니다.”

아버지는 곧 활을 가지고 숲으로 가서 털이 긴 어떤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쏘려 하였다. 열 사람이 물었다.

“왜 그를 쏘려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다스려야 합니다.”

(해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비록 그가 범복을 입고 무도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함부로 선망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것은 공이 그 아들을 해쳤다 하여 아버지가 억울한 선인을 해치려 하는 것과 같다.

는 귀여움을 받는다. 남녀사이에서도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잘 읽고, 여자 또한 남자의 마음을 잘 읽을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워 사람과 동료들의 마음을 잘 읽을 때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여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불자들의 공덕의 목표는 해탈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 중생이 고통의 원인인 탐(貪)·진(瞋)·치(癡)를 없애고 실행수행해야 하는 8가지의 길 또는 그 방법이 팔정도이다. 팔정도의 첫 가르침이 정견(正見)이다. 바른 견해로 사제(四諦)와 연기(緣起)의 이치를 알고 사물의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300부
* 인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대희 50부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은호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5대선사 다례제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대선사의 출가사찰이며 경허 대선사의 법맥을 이어 불교 중흥의 꽃을 피운 만공·보월·금오·월산 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대선지식의 수행력과 가르침을 기리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인연을 맺으시길 발원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6년 10월 25일 (음력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계사 극락보전

영가 합동 천도제

본 청계사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과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합동 천도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참다운 수행 공덕을 쌓아 가지길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7일 (음10월 3일) 목요일 10시

• 장 소 : 극락보전

• 동참금 : 30만원

• 동참금 :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9시 30분 접수처에서 영가웃 찾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학업(대학수능) 성취 정진기도

50일 특별기도

• 일 시 :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21일 특별 철야기도

• 일 시 : 10월 28일~29일 금요일 (무박2일)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 장 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 동참금 : 20만원

7일 사중 철야기도

•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밤 9시 ~12일 토요일 새벽 3시

• 철야기도 후 합격다라니 드립니다.

회향기도

•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절요

절요는 강원 사징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격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이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1. 著者の總序

① 著述の動機

牧牛子가 말한다. 「荷澤神會는 知解宗師다. 비록 曹溪의嫡子는 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깨달아 안바가 높고 밝아서 (의심을) 결단하고 (이치를 분별하는 일)이 분명하였으므로 密師가 그 뜻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이 錄 가운데 펴고 밝혀서 환히 보게 되었다. 이 教를 인하여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번거로운 말은 제거하고 강요만을 뽑아내어 觀行의 귀감을 삼고저 한다. 내가 요즈음 마음 뒤는 사람들을 보니 문자를 의지하여 그 가르침바 뜻에 나아가지 않고

「또 관행하는 사람이 비고 신령하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의리에 걸릴까 걱정한 까닭에 맨 끝에 本分宗師들의 徑載門 연구를 간략히 이끌어 知見의 병을 씻어 버리고 出身活路가 있음을 알게 하였다」

④ 誦教人

「요사이 禪과 教를 넓히는 사람들이 단지 문자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고 관행으로서 세상을 뛰어내려고는 끝내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불법유행의 시운의 이르는 바라고는 하나 그러나 사람사람이 날로 씀에 분명히 밝게 아는 마음(了了能知之心)은 고뇌의 성품

이른바 법이란 곧 중생의 마음이며

믿는 마음이 견고하여 정미로운 관조로 깨끗한 업을 쌓으면

깨달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불의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

바로 비밀한 뜻을 서로 전한 곳으로 도를 삼아 명칭한 한갓 수고롭게 앉아 졸며 혹은 관행에 마음을 잃고 착난하는 까닭에, 모름지기 실답게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여 깨달아 닦는 근본과 끝을 결백하여 그것으로서 자기 마음을 거울하면 곧 저 가운데 觀照에 그릇 공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 공하고 묘한 작용이 자재 로와 법이 스스로 그러하거나 시운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馬鳴祖師가 「이른바 법이란 곧 중생의 마음이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이 속이겠는가. 단지 믿는 마음이 견고하여 오로지 정미로운 관조로 깨끗한 업을 쌓으면 이생에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불의 바른 인을 잃지 않을 것이다.」

② 荷澤宗을 먼저 설한 이유

「또 錄 가운데는 神秀등 여러 宗이 먼저 실려 있는데 (그것은) 안고 잃은 것을 변명하여 열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저 한 것이고, 이제 鈔에서 荷澤宗을 처음에 든 것은 요컨대 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自心은 迷할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라 신령스런 知解는 어둠지 아니하여 (그 근본) 성품을 다시 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여러 종을 훑어보게 하면 그 뜻이 다 사람을 위한 門 가운데 참으로 묘한 방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저 한 까닭이다. 만일 먼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모든 宗들에 대해서 그 말의 자취를 따라 망녕스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낼 것이니 어떻게 능히 融會하여 자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⑤ 勸修淨行

「스스로 생각하여 보니 비롯함이 없이 음으로부터 생사에 빠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다가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고 불법을 만나 세간의 구애되는 일에서 벗어났거늘 만일 스스로 퇴굴하고 혹은 게을러 관행을 뒤지 않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취에 떨어진 뒤에서 비록 한 글귀 불법을 듣고 바른 생각으로 관조하기를 원한들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늘 함께 사는 도반들에게 분수를 따라 관행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수명 잇기를 권하고 원한 것이니 부디 여러 達士들은 함께 증명하시기 바란다.」

덕민스님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③ 徑載句를 所載한 이유

이 세상에는 공경할 만한 일곱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감싸고 어루만지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

삿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종일아함경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 화 경

화성유품(化城喻品) 줄거리 <하>

불교의 모든 교리와 사상은 크게 사성제와 12인연(12연기)에 그 근본을 둔다. ‘화성유품(化城喻品)’에서 대통지승여래는 12인연으로 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명(어리석음)이 없어지면 행(습관)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분별)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정신과 육체)이 없어지며,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여섯 감각기관)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감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느낌)가 없어진다. 수가 없어지면 애(이기적 사랑)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집착)가 없어지며, 취가 없어지면 유(거짓 존재)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태어남)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없어지느니라.”

‘화성유품’은 법화경 일곱 가지 비유의 하나인 화성(化城)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부처님의 지혜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내일

로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점 스대통지승여래에 16명의 왕자가 있는 데 이들이 마침내 출가 수도하여 대통지승여래의 뒤를 이어 법화경을 강설하게 된다는 점 스특히 16명의 왕자 중의 한 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점 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

석가 ‘전생담’...12인연 벗어나는 과정 설명
긴세월 잡아서 법화경을 익히고 전할 ‘발심’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법화행자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인 대통지승여래와 16왕자의 과거 인연과 성불은 우리의 과거 인연과 성불이다. 우리는 바로 그 인연 대중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드시 지름을 만든 그 원인이 되고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내일

대통지승여래불의 16번째 왕자로서 출가하여 대통지승여래에 법문을 청하고 나서 2만겁을 기다린 후에 묘법연화경을 들었고 그 후 팔만사천겁 동안 묘법연화경을 설하였다. 그리고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였다. 현재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자리에도 옛날의 인연들이 함께 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속세 세월의 인연을 본다면 또 앞으로 맞이할 많은 세월의 인연을 지금 짓고 있는 업으로서 미루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인연사를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켜 보아야 할 일은 긴 세월을 잡아서 법화경을 익히고 법화경을 전할 발심을 하는 일이다. 법화경의 깨달음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화성과 보배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이 발심하도록 화성을 짓고 보배의 장소를 짓는다. 부족한 미혹을 규정하고 기복과 이승 그리고 일불승을 정하기도 한다. 보배의 장소를 향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이나 화성에 도착해서 피로를 풀고 다시 발심하는 때나 보배의 장소와 다를 바가 없다. 대통지승여래불과 그의 16 왕자 사미처럼 법문을 청하고 2만겁을 지낸 후에 묘법연화경을 듣고 8만4천겁을 쉬지 않고 법화경을 닦는 그 자리에 왕자의 자리와 사미의 자리, 사미의 자리와 부처의 자리에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화성유품’에 나온 유명한 회향계송은 전교 사찰의 주련에 많이 쓰이고 있다. “원하옵건대 이 인연 공덕이 널리 모두에게 입혀져서 나와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무량수부처님을 뵈고 불도를 이루이다.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뉴스&뉴스

8월 초하루기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음력 8월, 초하루 기도를 지난 27일 사부대중은 현연일체가 되어 기도 정진했다. 법문에 앞서 합창단은 주지스님 재입 감쪽 이벤트 축하곡을 음성 공연했다. 이어 주지 성행스님은 “재임에 어찌가 무겁지만 더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인생은 태어남 자체가 고(苦), 즉 괴로움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며 “‘나’라는 본체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이해롭게 중도를 지켜 좋은 마음, 반듯한 생각, 좋은 말, 정진, 진리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도량에서 생겨나

입시생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선물하시는 부처님과 고달픈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정한 승가에 귀의 하나이다. 저희들은 크게 거룩한 사람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을 받들어 이해와 사랑을 갖춘 엄마·아빠가 되려 하옵니다. 배움보다 큰 기쁨은 없으며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여 삼급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하여 기도 발원하옵니다.

니 끊임없이 정진하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삼보회 회장(대월광) 거사 칠순잔치를 자랑면 대중공양으로 대신했다. <글 황청량님>

희망나래 복지관 추석행사



지난 9월14일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민을 위한 추석행사 웃놀이 대회가 열렸다. 3인1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을 위해 마련한 웃놀이 외에도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했다. 또한 추석 차례상이 가볍지 않도록 사전에 명절 선물도 전달했고 의왕시장 김성태, 국회의원 이소영이 동참 행사를 축하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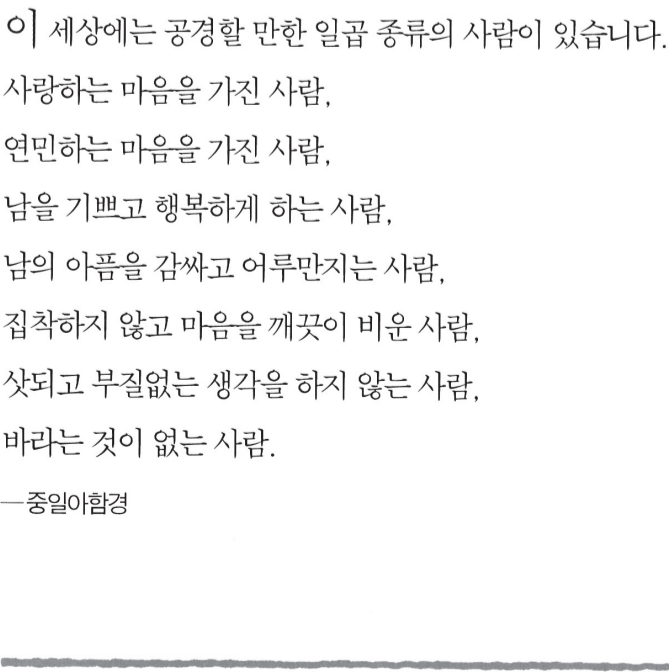
사 주지 성행스님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 했다. 관장 지현스님도 “활기를 띄고 있는 복지관 분위기를 살려 코로나 속에서도 공정에너지가 지역사회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글 주향진님>

김장배추 모종 심었어요!



태풍 예보로 지난해 보다 조금 이른 지난 9월 3일 청계사 밭에서 신도회 및 각 봉사단 불자들이 모여 김장배추 모종 심기 율력이 있었다. 여기서 자란 배추로 김장을 담아 청계사 신도와 불자들의 공양에 쓰이고 여러 외부 단체에 보낼 김장 재료로 쓰인다. <글 서용화님>

하기를 발원합니다. 자녀들의 헌명한 노력에 저희들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지원하는 학교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연마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외웁니다. 먼 훗날 이러한 기도와 정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소 짓기를 희망합니다. 혈연의 조상님 그리고 법연의 수많은 스승님들의 무한한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사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거룩하신 삼보님이시여!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지켜주소서!



대면 이야기·아래도 읽고 있습니다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⑩

관음성지

봉화 축서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하지만, 이 역시 양감이 절제되어 단아한 인상을 준다. 하체는 걸가부좌한 두 무릎이 넓게 퍼져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무릎이 낮아 이 역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손은 가슴에 모아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싼 이른바 지권인을 짓고 있는데, 역시 작고 섬약한 편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섬약한 모습이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의 모습과 비슷하다.

더욱이 전신을 덮고 있는 대의의 평행하

축서사 괘불탱화는 2003년 8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가로 5.07m, 세로 8.84m이며,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걸개그림이다. 1768년(영조 44)에 정일스님 등 승려 10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이 괘불탱은 모시바탕에 채색한 그림이다. 정면을 향해 서 있는 불상을 화면 가득 채게 그린 다음, 키 모양 광배의 윗부분 주위로 화불과 보살상을 배치한 독존도이다. 붉은 연꽃을 딛고 서 있는 주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초록색과 붉은색 위주의 범의를 길게 드리우고 있



◇수도승의 모습을 표현한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축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로,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굽어져 내려오는 경복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문수산 기슭 해발 800m 고지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이며 신라 제

30대 문무왕 13년(서기 673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3년 뒤에 의상대사는 축서사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봉황산 중턱에 동국 화엄 제일도량인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흔히 축서사를 부석사의 큰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승의 모습을 표현한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불상 높이가 108cm, 대좌 높이가 9cm. 부석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인지 부석사 부근의 여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비슷한 유형이다. 더구나 가는 눈, 빈약한 코, 작은 입의 표현으로 현실의 사람 모습 그 가운데에

서도 수도승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즉, 불(佛)의 이상적인 모습보다도 현실적인 인간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경향, 이른바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이다. 상체는 곧고 반듯하여 얼굴보다 긴장하게 느껴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수도승 모습 표현 괘불탱, 인물·문양 표현 세련되고 화려

게 밀집된 옷자락무늬는 철원 도피안사 철불에서 표현된 옷 주름 형식이어서, 두 불상이 한층 더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서사 불상 옷 주름은 보다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깨의 무늬, 소매자락이나 발목 등에 날카롭게 자른듯한 거칠거칠한 표현 등 한결 섬세해지고 보다 기하학적이 되었다. 특히, 가슴의 U자형 옷깃에 표현된 꽃무늬는 9세기 후반기의 특징적인 불상 수법이다. 또 9세기 후반기의 옷주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물결식 표현이다. 두 팔에서 흘러내린 주름이 두 무릎을 덮고 다리 사이에서 부채꼴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물결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왼손을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한 채 가슴 주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뜨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긴장해 보이는 체구지만 얼굴과 손·발은 작아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보인다. 얼굴 형태가 원만할 뿐 아니라 색채 또한 선명하고 화려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림의 배경은 상?하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단에는 초록색과 붉은색 구름문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이의 공간은 검게 처리하였고, 하단은 녹색 바탕에 만(卍)자 무늬를 키 대각선으로 연속시켜 화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정리 여여망)

사찰음식 배워보기

단호박조림

*재료: 단호박 1/2개, 견과류 (호두, 캐슈넛, 아몬드, 해바라기씨, 크린베리 등)
양념: 양조간장 4큰술, 육수 1컵, 조청 3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만드는 법:

1.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속을 파내고 잘게 썰어준다.
2. 냄비에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가 썰어놓은 단호박을 넣는다.
3. 단호박 색이 변하고 양념물이 자작해지면 견과류를 넣고 살짝 조리한다.
4. 조청을 넣어 마무리한다. (정리 주향진성)



심(沈) 대감은 관대함으로 유명했다. 심지어 물건 값을 깎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많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기본전환으로 잔치를 베풀고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마치 돈을 쓰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보였다.

중국 속담에 있는 말처럼 그는 부모를 빼고는 두 다리 있는 모든 것과 침대와 의자를 빼고는 네 다리 있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했다. 식탐이 매우 강했다. 게다가 그는 항상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항상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최고의 품질을 요구했다. 그의 침대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중국 침대는 위에 덮개가 있으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심 대감의 침대는 황제에게도 결맞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안락했다.

심 대감은 먹는 것으로 삶을 즐겼다. 삼시세끼를 오리의 뇌, 곰의 발, 상어 지느러미, 낙타의 후, 인승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⑨ 탐욕

이 입술, 병아리, 개구리, 사슴고등 온갖 종류의 희귀하고 값비싼 진미로만 먹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기본전환 위해 산해진미로 잔치를 열어

사체가 심 대감의 목구멍으로 내려 갔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관직에서 은퇴하면서 심 대감은 대궐 같은 저택을 샀다. 정원에는 연못과 개울이 있었고, 앉아 할 수 있는 정자까지 갖추었다. 얼마나 멋있던지 사람들은 심 대감 집이 과연 지상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식탐이

많은 그는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하고 음식을 산해진미로 먹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나? 지금 즐기기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식탁 위에 산해진미가 없으면 인생이 무엇이 되겠는가?” 심 대감은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 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식탁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며 그도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수근 거렸다.

세월이 흘러 심 대감의 재산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조약들, 헌신, 새똥 심지어는 찻잔과 접시들도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들까지 씹어서 삼키곤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식탐이 스스로를 죽였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3)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제1장 문수보살장 ①

부처님의 수행법

제1 문수보살장은 이 경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문수보살이 맨 먼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인지(因地)에 있을 때 어떻게 수행하여 여래가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순서로부터 시작된다.

대승불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진 문수보살이 범회대중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처음 일으키셨던 법다운 수행과 모든 보살들이 대승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 번뇌의 병을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쭙어 말씀하게 하며, 아울러 말세중생들이 사된 소견에 빠지지 않게 하려 범문을 청한다.

1-1 범회에 들어가며

於是 文殊師利菩薩在 大衆中 即從座起 頂禮佛足 而 右繞三匝 白佛言 如來 大慈大悲 憐愍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清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清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 末世 衆生 求大乘者 不墮那見 開示 作是語已 五體投地 如是三請 終而復始 白言

講說 文殊師利菩薩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공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무릎을 꿇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참석한 보살이 십만 명인데 특히 문수보살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첫 번째 질문은 여래가 수행의 과정에 발심 할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으며, 어떤 수행으로 발심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살들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일으켰으나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을 하여야 바른 지견(知見)을 얻고, 치우친 견해의 병에 떨어지지 아니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현재의 회중(會衆)들을 위하여 질문한 것이지만 실은 다분히 미래 수행인을 위한 것이니 보살의 지혜한 마음이 들어있습니 다.

1-2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爾時 世尊 告文殊師利菩薩言 善哉善哉 善男子 汝等 乃能爲諸菩薩 諮詢如來 因地法行 及爲末世 一切 衆生 求大乘者 得正住持 不墮那見 汝今諦聽 當爲汝說 如來 文殊師利菩薩이 奉教歡喜하며 及諸大衆으로 默然而聽하더라

講說 부처님은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설법하여 줄 것을 허락하며 자세히 들어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이하는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기쁘게 받들어서 조용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하는, 현재와 멀리 미래 세상을 위하여 깨달음에 나아가는 수행을 열어 보임으로 수행의 근본을 삼게 하니, 위로는 세존의 뜻에 맞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합하므로 칭찬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입니다.

‘환희’는 법의 기쁨(지혜)을 말하고, ‘조용히’는 선의 기쁨(지혜)을 말하니, 안으로 법희선열(法喜禪悅)을 품고, 부처님의 미묘한 설법을 들으므로 ‘환희하고, 조용히 듣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녹향원에 전해진 지역사회 따뜻한 온정의 손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격려



2022년 추석 명절 녹향원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어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청계사 중상 큰스님께서 피자를 후원해 주어 녹향원가족 모두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구분), 수입 (수입), 지출 (지출), 전월이월금 (전월이월금), 수입 (수입), 지출 (지출),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Total revenue is 2,370,480 and total expenditure is 713,01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31일)

- List of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ategorized by amount (e.g., 5,000원, 10,000원, 20,000원, etc.).

물품 후원

장미영-기정떡, 유병주-음료수, 김재기-옥수수, 청계사-과일, 군산수산-활어회, 삼성에스원-사과, 잘보리쌀, 잡곡누룽지, 황태재, 사골곰탕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영가천도의 기도공덕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받들며 부모를 공양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당대의 부모님뿐 아니라 선망부모, 유주무주의 고혼 등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재를 베풀고 공양을 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법식(法食)을 베푸는 일이 공덕을 쌓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곧바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일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으며 그리고 영가천도의 기도공덕 중에는 살아있는 이들이 지극 정성으로 영가천도를 올려줄 때 허공을 떠도는 영가들로 하여금 후손들을 옹호해주는 음덕을 베풀도록 기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조상 위한 일이 자신과 자손을 위하는 일이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일깨워 줘

살을 공양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의 의식을 받들어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공덕으로 살아계신 부모는 백세 장수를 하되 병고액난이 없을 것이요, 선망부모는 아귀보를 벗어나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갖 계를 범하고 악업을 지었더라도 이 보살의 큰 자비와 이름을 듣고 온 몸을 땅에 던져 성심으로 예배하면 일체 악업이 곧 청정해질 것이다. <상생경> 중생이 세 가지 업으로 악을 지었더라도 죽음에 다달아 여러의 공덕을 생 각하면 반드시 악귀를 떠나 천상에 날 것이다. 설령 극히 악한 사람이라도 염 불을 하면 천상에 날 것이다.

생활의 지혜

- 오렌지 껍질은 유리컵 닦을 때 사용
맛있는 오렌지를 다 먹고 난 후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유리컵이나 유리그릇을 닦을 때 활용하면 좋다.
• 금이 간 접시는 우유에 담가 풀린다.
사실 요즘 같은 절약 시대에 그릇에 약간의 금이 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달의 후원금

금 2,370,48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운을 바꿔주세요

12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with corresponding advice and illustrations.